



프로야구 개막 D-2

2010 프로야구 개막을 3일 앞둔 2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자체 흥행전. 백팀의 3회말 공격 2사 2루 상황에서 홈팀 선발 서재용의 견제구가 빠진 사이 3루로 진루하던 주자 이현근이 아웃당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흥런 한방 날리면 **50000** 승수 쌓으면 **30000** 탈삼진 하나에 **10000**



<김상현> <나지완>

## 타이거즈맨들 '사랑의 1투1타'

성적으로 일군 적임액 불우시설 돕고 모교 기부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010시즌 이웃사랑에 앞장선다. 27일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KIA 선수들이 올 시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적립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거포' 김상현과 나지완은 흥런 하나당 5만 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각각 36홀런과 23홀런으로 팀 타선에 무게를 더했던 이들은 올 시즌 41홀런과 30홀런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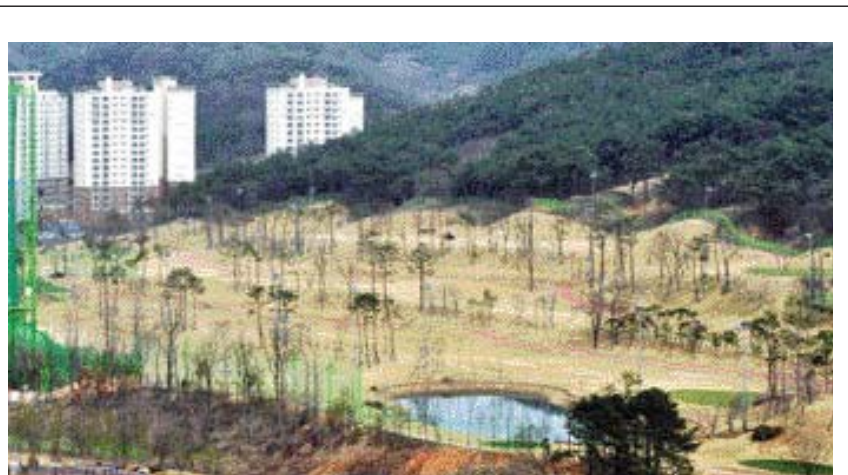
'불편의 핵심' 광정철과 손영민도 사랑을 던진다. 두 선수는 1홀당 2만원, 1승당 3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정철은 5승 7홀드, 손영민은 5승 12홀드를 기록했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도 후배 사랑을 실천한다. 지난 시즌 139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던 양현종은 올 시즌 삼진 하나당 1만 원을 적립해 모교 학강초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용규, 안치홍, 이종범 등도 변함없는 이

웃 사랑에 나선다. 지난해 안타와 도루를 기록할 때마다 2만 원을 적립했던 이용규는 올 시즌에도 야구를 통한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한다. 2년차 안치홍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재단과 결연을 맺고 안타와 도루당 1만 원씩을 적립해나간다. 노장 선수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동안 야구를 통해 받은 상금을 불우이



<손영민> <광정철>

웃시설에 기부해왔던 이종범은 올 시즌에도 성금을 개별 적립 한 뒤 시즌 종료 후 복지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과 1인 결연을 맺은 고참 서재용과 장성호도 매월 5만 원을 적립해 후원하기로 했다. 이강철 코치도 후원활동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어느해보다 KIA 선수들의 이웃사랑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는 29일 개장하는 '빛고을CC', 9홀 퍼블릭 코스다.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빛고을CC 29일 개장

접수순서대로 이용 가능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빛고을 CC'가 오는 29일 개장한다. 골프장은 9홀 퍼블릭코스, 총연장이 2천700m이며, 클럽하우스(2천27㎡), 관리동(418㎡), 그늘집(56㎡), 주차장(110면) 등으로 구성됐다. 빛고을건강타운 바로 옆에 조성된 빛고을 CC는 광주시의 내 유일하게 골프장과 연장을 겸비했다. 전 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라운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평일 6만5천원, 주말 9만5천원으로, 예약 및 접수순서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19일 개장한 골프연습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75타석 규모로, 현재 이용회원이 1천641명에 달하고 있다. 빛고을 골프연습장은 입장에서 이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최첨단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개장 이후 이용자 편의를 배려해 층별 라커와 퍼터 연습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 도심 내에서 10분이면 골프장에 올 수 있는 교통여건과 고품격 설계, 저렴한 가격 등이 빛고을 CC의 장점"이라며 "또 골프연습장 수익금이 광주의 최고 명소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양용은 '골프스쿨' 中 진출 추진

프로골퍼 양용은 선수가 골프스쿨을 설립, 중국 진출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진출 사업은 코트라가 지원한다. 조환익 코트라 사장은 24일 제주도에 열린 한-EU 카톤 컨넥션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코트라가 그간은 제조업 분야 지원을 중요시했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며 서비스 쪽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단기적 세일즈보다 네트워크를 해주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특히 "새로 구상중인 사업으로는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을 돕는 것

을 계획 중"이라며 "양용은 선수가 중국에 골프스쿨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 선수가 왜 코트라 마크를 달고 출전했는지"라며 "중국에 인센티브가 붙을 것이고, 그럴 때 골프스쿨을 보낸다든지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역전 드라마

9회말 2사후 동점 → 10회 승부처기 '우승 후보' 천안복일고 3대2로 꺾어

광주일고가 천안 복일고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펼쳐 황금사자기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24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황금사자기전국야구대회 복일고와의 16강전에서 연장 10회 승부처기 접전 끝에 3-2 승리를 거뒀다. 극적인 승부였다. 복일고는 우승후보로 꼽히는 강석, 조만 경기 흐름도 복일고가 주도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광주일고의 선발 이정

호가 세 타자에게 연속해서 안타를 맞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0-1로 뒤지던 무사 1-3 루, 에이스 유창식이 투입됐지만 포수의 2루 송구가 빠지면서 3루주자가 홈을 밟았다. 2회말 2사3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광주일고는 4회 다시 한번 절호의 득점 기회를 맞았다. 이동건, 백왕종의 연속 안타로 만든 1사 1-3루. 하지만 이번에는 백세웅의 타구가 유격수 클러브에 그대로 빨려들어가면서 스타트를 끊었던 1루 주자까지 동시에 아웃됐다.

복일고 선발 송윤준과 광주일고의 두 번째 투수 유창식의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되던 7회 광주일고가 전은석의 3루타와 대타 최재원의 2루타로 1점을 만회했다. 9회말 광주일고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선두타자로 나온 유창식이 중전안타를 터트리며 공격의 포문을 연 뒤, 상대 실책까지 더해지면서 2사 1-2루가 됐다. 이후 복일고 구원투수 이영재의 폭투가 연달아 나오면서 승부는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10회 복일고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은 광주일고는 이어진 10회말 1사 2-3루에서 김요셉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3-2로 승을 거머쥐었다. 1회 위기의 상황에서 마운드를 넘겨받은 광주일고 좌완 유창식은 10이닝을 단 4개의 안타로 막으며 대회 2승째를 챙겼다. 탈삼진은 8개를 기록했다. 난전 복일고를 꺾은 광주일고는 26일 신일고-화순고전 승리팀과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정광고 전대운 대회 MVP

주니어 역도선수권 105kg급 용상 204kg 대회최신

'역도 유망주' 전대운(정광고·사진)이 제48회 전국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전대운은 24일 경기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5kg급 용상에서 204kg을 들어 올려 종전 대회기록(195kg)을

무려 9kg이나 늘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로써 전대운은 인상에서는 150kg으로 3위로 떨어졌으나 용상에서 선전한 덕분에 합계 354kg으로 우승해 2관왕이 됐다. 이날 전대운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안소영(원주여고)은 여

자주니어선수권 최종량(175kg)에서 인상 100kg, 용상 125kg, 합계 225kg을 기록해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앞서 열린 여자 75kg급에서는 최다래(수원시청)가 인상 93kg, 용상 113kg, 합계 206kg을 성공해 3관왕이 됐다. 대회 여자 최우수선수상은 69kg급 권피연(포항해양과학고)에게 돌아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이세돌 고향팀 '신안천일염' 입단

주장말마 2010바둑리그 참가

'켄돌' 이세돌이 자신의 고향팀인 신안태평천일염에서 활동하게 됐다. 그동안 이세돌 영입에 공을 들여왔던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KB국민은행 2010 한국바둑리그"에서 이세돌 9단이 신안태평천일염팀 주장으로 뛰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안 태평천일염팀은 이세돌의 친형인 이상훈 7단을 이미 감독으로 내정한 상태여서 바둑리그 사상 처음으로 형제가 한 팀에서 감독과 선수로 뛰게 됐다. 지난 16일에 열린 한국바둑리그 팀 관계자 회의에 노순용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실무자 3명을 급파한 신안군청은 보호선수(지난해 보유했던 선수들 중 드래프트에 내놓지 않는 2명의 선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출혈을 감수하며 이세돌 영입을 위한 드래프트 1순위 양보를 팀에 호소했다. /연합뉴스



한해 성적이 드래프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 각 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지명권 양보에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지역 스타 영입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팀을 창설했고, 지난해 1순위를 양보 받았음에도 정작 이세돌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정을 호소하는 신안군청의 '읍소작전'에 타 팀들이 흔쾌히 만장일치로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양보를 결정했다. 국내 유일의 팀 대항 단체전인 한국바둑리그는 26일 감독 선임과 연구진 결정, 4월 21일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를 선발한 후 5월 6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